논어 18편 미자 2장 · 원문·풀이

柳下惠爲士師，三黜。人曰：「子未可以去乎？」曰：「直道而事人，焉往而不三黜？枉道而事人，何必去父母之邦？」

독음 · 류하혜위사사 삼출 인왈 자미가이거호 왈 직도이사인 언왕이불삼출 왕도이사인 하필거부모지방

쉬운 풀이(요약) · 유하혜는 곧게 일하다 세 번 쫓겨나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곧음을 지키면 어디서든 어려움이 있고, 굽힐 것이라면 굳이 떠날 까닭이 없다는 뜻이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柳 버들 류 류 / 下 아래 하 하 / 惠 은혜 혜 혜 / 爲 할 위

士 선비 사 사 / 師 스승 사 사 / 三 석 삼 삼 / 黜 내칠 출 출

人 사람 인 / 曰 가로 왈 / 子 아들 자 / 未 아닐 미 미

可 옳을 가 가 / 以 써 이 이 / 去 갈 거 거 / 乎 어조사 호

直 곧을 직 직 / 道 길 도 도 / 而 말이을 이 / 事 일 사 사

焉 어찌 언 언 / 往 갈 왕 왕 / 不 아닐 불 / 枉 굽을 왕 왕

何 어찌 하 하 / 必 반드시 필 필 / 父 아비 부 부 / 母 어미 모 모

之 갈 지 / 邦 나라 방 방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